

# 지정학적 긴장 완화 속 코스피 5,500선 극적 돌파

외국인의 순매도와 극심한 유가 변동성 속에서도,  
개인의 강한 매수세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 
국내 증시의 2%대 강세를 견인했습니다.

KOSPI

5,553.92

(+2.74%)



KOSDAQ

1,121.44

(+2.24%)



WTI 유가

\$91.84

(+\$2.62)



원/달러 환율

1,486.70원

(-5.30원)



#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3대 연쇄 동인



## 지정학적 트리거 (The Spark)

이란 공격 보류 &  
트럼프 SNS 발언

중동 긴장 일시적 완화 및  
48시간 최후통첩 소화.



## 원자재 쇼크 (The Filter)

유가 장중 **13% 폭락** vs  
종가 **\$91.84 상승** 마감

생산자물가(PPI) 6개월 연속  
상승 압력 속, 100달러 미만  
유지로 단기 안도감 형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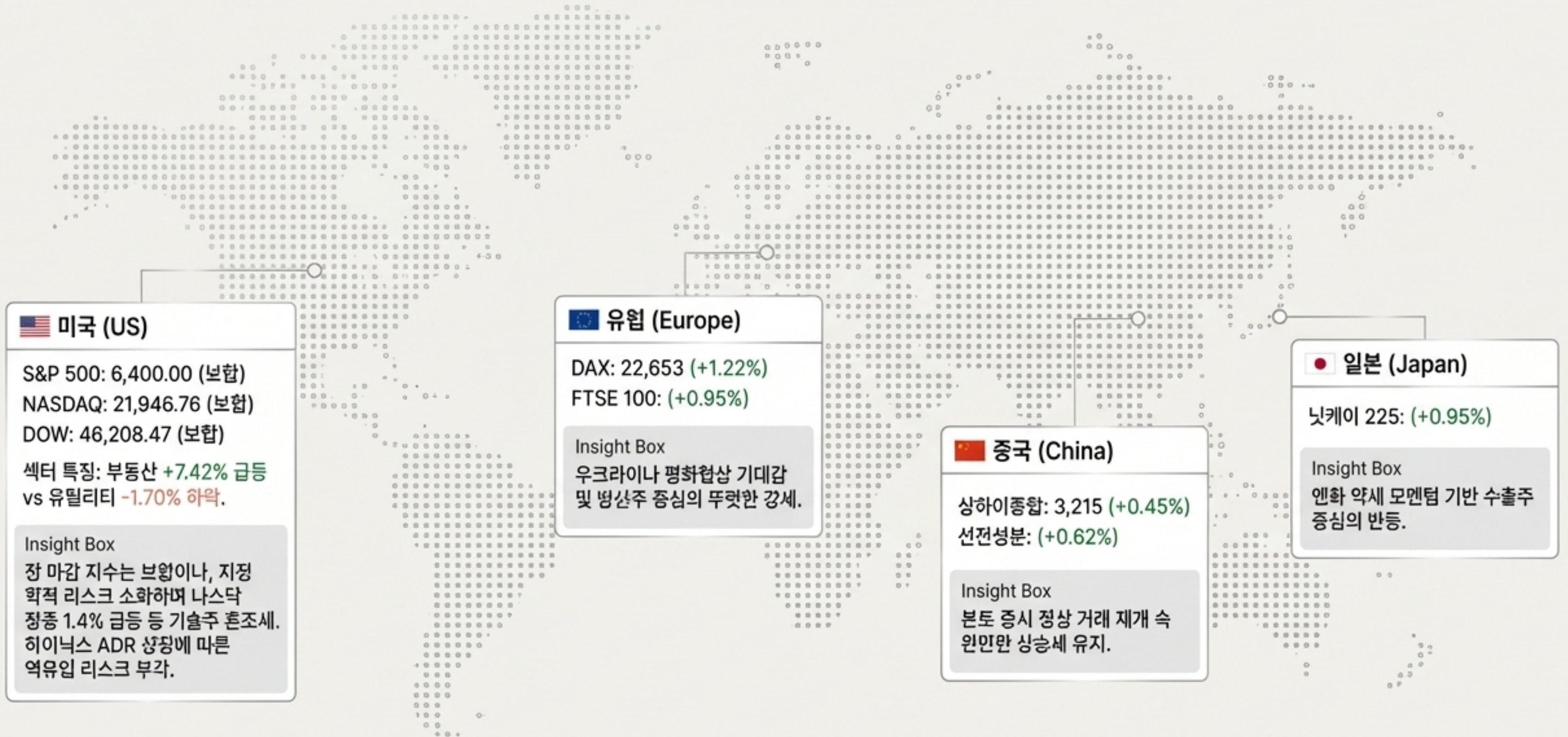


## 증시 리액션 (The Outcome)

위험자산 선호 심리  
V자 회복

아시아 증시 **2~4%대 급등**  
출발 및 나스닥 기술주  
장중 **1.4% 반등** 유발.

# 글로벌 릴리프 랠리: 위험 선호 심리의 귀환



# FICC 디커플링 현상과 금값의 역설

## 금리와 에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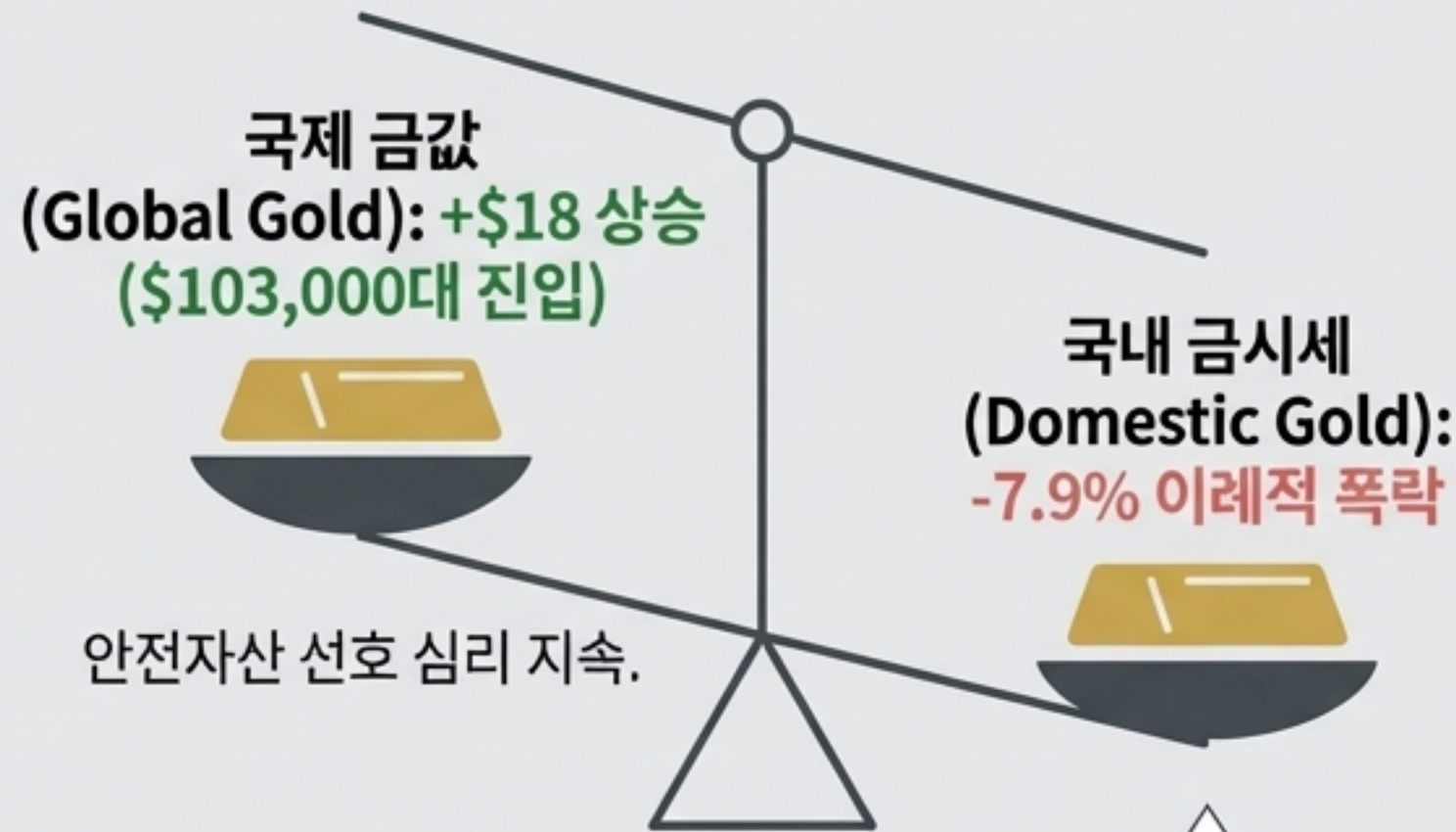
**미 국채 10Y: 4.338%**  
**(+5bp)**

FOMC 매파 기조 재확인.

**WTI 원유: \$91.84**  
**(+\$2.62)**

장중 폭락(-13%)에도 불구하고,  
OPEC 감산 연장 기대로 낙폭  
만회.

## 금값의 역설 (The Gold Paradox)



국제 금값은 상승했으나, 원/달러 환율의  
급락(1,486.70원, -5.30원)과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 
축소가 동시에 겹치며 국내 시세는 직격탄을 맞음.

## 암호화폐

**비트코인: \$103,000**  
**(+\$1,240)**

ETF 순유입 지속되며  
강세 방어.

# 코스피 5,500선 탈환: 개인 유동성의 승리

KOSPI

**5,553.92**  
+148.17pt (+2.74%)

5,500선 안착

KOSDAQ

**1,121.44**  
+24.55pt (+2.24%)

순환매 장세 본격화

## 수급 블랙박스 (Supply & Demand)

외국인 (Foreign):  
-616만 주 순매도  
(대규모 이탈)

외국인 (Foreign): -110만 주 순매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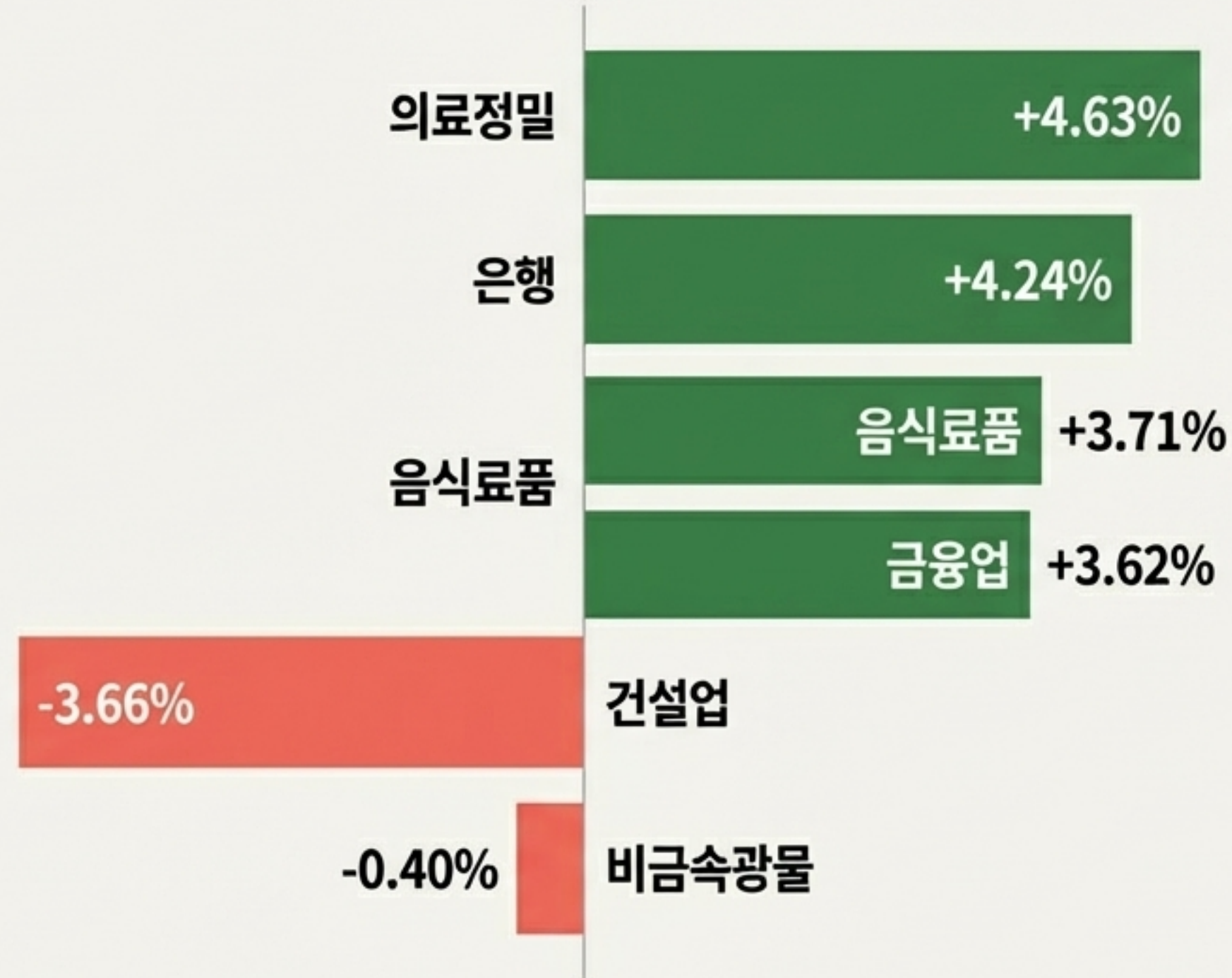
기관 (Institution): -20만 주 순매도 (관망세)

개인 (Retail): +465만 주  
순매수  
(지수 방어 및 랠리 주도)

외국인의 대규모 이탈(-616만 주)에도 불구하고, 풍부한 개인 매수세(+465만 주)가  
지수 하방을 완벽히 방어하며 2%대 강세장을 연출함.

# 주요 산업 섹터별 등락 진단: 경기 방어주로의 자금 쏠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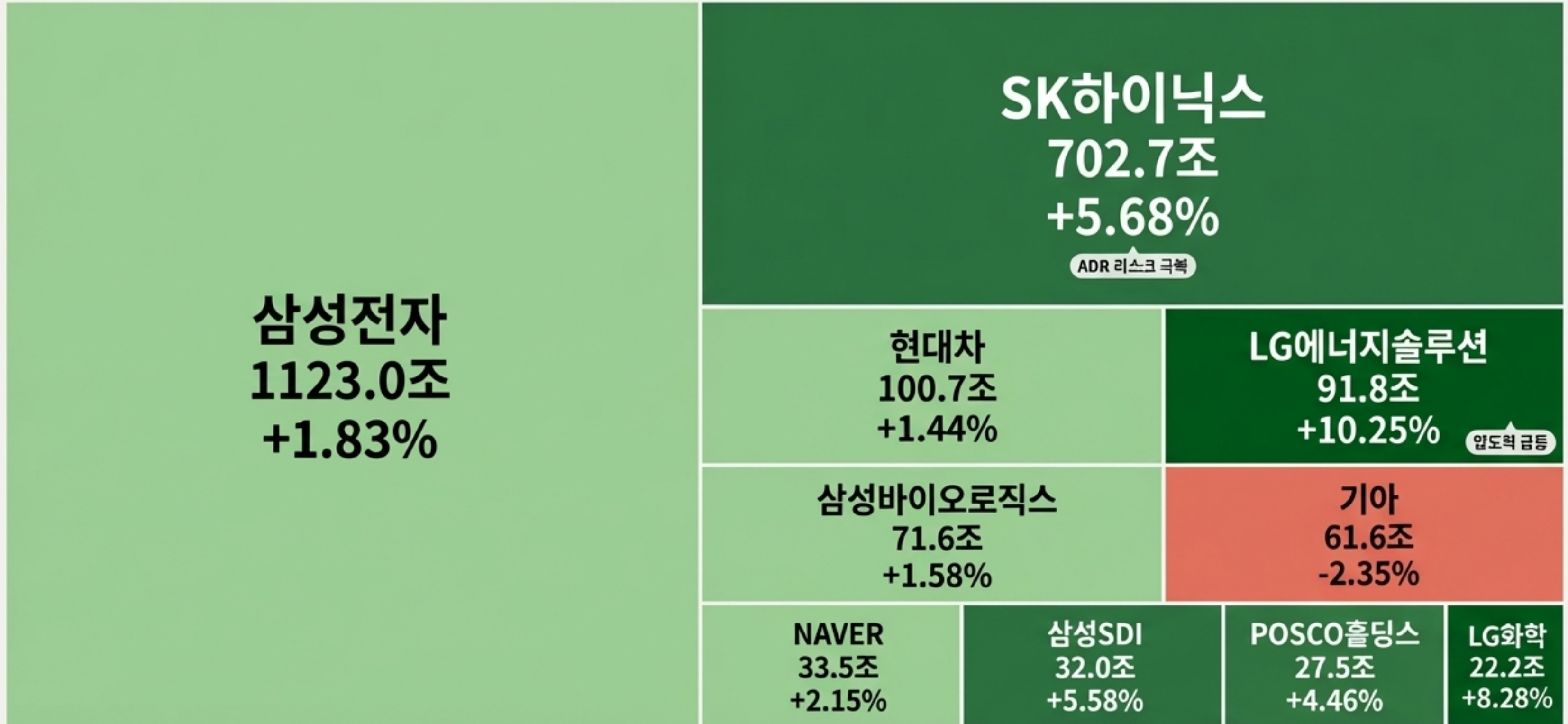
## Sector Performance Matri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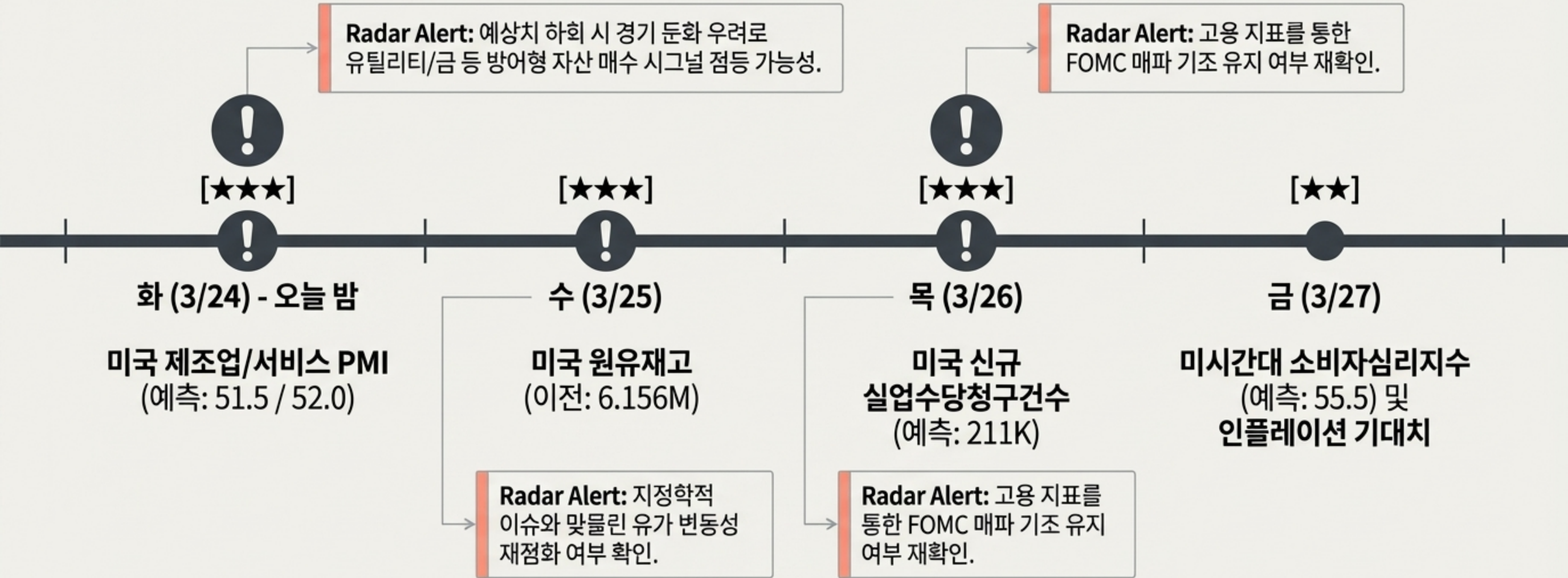
**주도 섹터:**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/금융 및 음식료 등 전형적인 경기 방어 및 내수 섹터로 자금이 집중됨.

**소외 섹터:** 미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(+5bp) 압박과 국내 부동산 PF 우려가 맞물리며 건설업 나홀로 급락.

#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: 2차전자·화학의 폭발적 주도



# 주간 리스크 레이더: 변동성 2차 뇌관을 찾아서



# 내일을 위한 핵심 관전 포인트



Pillar 1

## 수급의 줄다리기

개인 투자자의 강한 유동성이 코스피 5,500선을 지속 방어할 수 있을지가 핵심.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600만 주 이상 이탈한 외국인 자본의 귀환이 필수적.



Pillar 2

## 매크로 변동성 장세

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도,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세(+5bp), 그리고 1,480원대로 진입한 원·달러 환율의 약세 흐름이 글로벌 위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체크.



Pillar 3

## 지표 기반 섹터 로테이션

오늘 밤 발표될 미국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, 경기 민감주에서 금, 유틸리티, 음식료 등 방어형 자산으로의 단기 자금 이동(Rotation)에 대비할 필요.